

될 수 있으면 둥글고 너그럽게 마음을 쓰세요

25면에서 계속

났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먹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공심이요. 공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해서 바뀌면서 하는 걸 화해서 바뀐다. 화해서 잘나에 나뉜다고 합니다. 한 잘나 잘나 나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화해서 자주 나뉘면서 다른 활동을 하고 다른 생활을 하고, 달리달리 자꾸자꾸 보고 듣고 행하고 이렇게 하곤 실재 없이 나간단 애깁니다.

그러니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모두가 공했느니라 이겁니다. '없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러니 없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바로, 내가 똥 누러 갈 때에 똥을 뉘야 하나 안 뉘야 하나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냥 싸 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단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걸 표현한다면, 진깃불을 켜려 해도 쌍방이 한데 어우러져야, 줄과 줄이 어우러져야만이 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어우러지게 해 놓고 또 가운데 스위치를 눌러야 들어온단 애깁니다. 자유스럽게 끄고 켜고 할 수가 있단 애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식들의 말씀이 "너는 무슨 공부를 하고 한 철을 나고 왔느냐?" 하니까 "나는 졸리면 잠자고 똥마려우면 똥을 뉘고 배고프면 밥을 먹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야, 이놈아! 누가 밥 먹을 줄 모르고 똥 누 줄 모르고 잠 잘 줄 몰라서 그러느냐!" 하고 내쫓았겠죠. 그런데 어떤 스님도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내쫓겼답니다. 부목으로 내쫓겼는데도 흥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냥 나무를 해서 평평 패다가 그거를 한 아름씩 안고 이 아궁지 저 아궁지로 다니면서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벌이 어쩌다가 방에 들어서 창살이 문인 줄 알고 쪼다가 그냥 똥똥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그런 노래를 만날 하면서 주지 방 앞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불려다가 물어보니까 "경전을 그렇게 읽어서 똥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또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고, 그러니 무엇을 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아무리 먹기 위

서 산다고 하지만 먹기 위해서 살지는 마세요. 살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 법이, 부처님 한생각이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똥똥이로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떼어서 천 리를 가려면 얼마나 기가 막립니까? 네? 똥똥이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아마 수 광년이 걸린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한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답니다. 한생각이라는 게.

나는요, 여러분이 이 도리만 알면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왜들 그렇게 찌들려서 붙잡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 가정에 앉아서도 자기 한생각으로써 회사에 모든 패단이 생기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생명들 전체가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기계도 생명이고 이름이 있고, 바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물건 하나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애깁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저거는 움직여갈 수 없다 하니까 그냥 움직여가지 못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쓰기에 달렸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대를 받고 어떻게 100% 잘 되게끔 같이 해 줍니까? 돌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이 생명이 있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얘기들을 하고 모두 토론도 하고, 모두 그렇게 하고들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질 못해서 그렇죠.

그레 여복하면 여러분에게 '자신(自神)'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몸과 신(神)이 둘이 아니라는 애깁니다. 모든 게 신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신과 신이 둘 아니게 똥똥 똥똥쳐서 너도 주인 나도 주인이니 모든 것을 주인이 한 마음으로써 이끌어 가는 거니까, 이끌고 가는 선장이 모든 것을 하는 거니까 '선장이 전부 하는 거니까.' 하고 다 맡겨 놓고, 이렇게 하

라고 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형성시킨 참자기와 현재에 형성된 자기가 상봉을 하게 하느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봉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무(無)의 공부를 못하니까요. 그 천차만별의 뜻을 가진, 중용을 하는 이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상봉해야만이 스승을 좇아서, 즉 말하자면 참나를 좇아서 무의 공부를 하면서, 또 현재 나를 통해 보고 듣는 대로 감지하는 바로 무의 참나는 같이, 같이 같이 잘나잘나 보고 듣고 이러면서 들이면서 내면서 공부를 해 나간단 애깁니다.

이렇게 광대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냥 모두 마음속으로 끌어안고 해매고 이렇게 한다면, 착을 두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나왔습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한바다 속에서 살던 생물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이 마음의 도리를 닦아서 짐승이 되지 않고 인간에게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에게까지 와 가지고 또 인간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날 게 있습니다. 인간세계에서는 또 공기라는 주머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기도 지수화풍이 가공돼서 형성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공기주머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가정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 누가 사랑을 하지 말겠습니까, 돈을 벌지 말겠습니까. 가정을 이끌어 나가

서 놓았고 그저 어디고, 하다못해 달력에도 써 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못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 몸을 벗는 다 하더라도 짐승이 될지 사람이 될지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가는 데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이 수레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또 좌천이 돼서 짐승의 몸이 된다면 이렇다면 그걸 어떻게 하니까.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가 살아간 게 은연중에 다 그냥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입력이 있고 오신통이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하나 잘못 쓸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너그럽고 둥글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그렇게 안 했겠느냐.' 하고 한 번 너그럽게 생각해 보고 '그것이 바로 전자에 내가 몰랐을 때 내 모습과 같다.' 이랬을 때 돌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가 나는 걸 둥글게 쓸 줄 알고 모가 나는 말을 둥근 말로다가 쓸 줄 알고 둥글게 행할 줄 알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식들이나 부모, 또는 남편이나 아내, 모두 내 탓으로 돌려라 했습니다. 왜 내 탓으로 돌려느냐. 변연히 내 남편이 잘못하고 내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잘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탓으로 돌려느냐 이러지만, 바로 이런 묘리가 있죠. 이 열치열이라는 묘리가 있어요. 상대방을 나무라기 이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집으로 시집을 와서 이 사람을 남편을 삼고 자식을 낳고 부모를 섬기고 살지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거든 내 탓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범문은 1994년 12월 11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먼저 알아라 네 마음이 너를 이끌고 가는 거다

렇게 한다면 도저히 피안의 세계의 그 맛을 못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긴가. 그런데 말입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 가운데 생사가 없다 하는 도리를 알게 되기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항상, 옷이 더러우면 벗어 버리고 다른 세련된 거 입고 또 옷이 헐면 새 양복을 맞춰서 입는 거와 같이 그런 인생을 자유인으로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곱데기 벗어 버리는 건 뭐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죠. 하늘이 무너진단 하더라도 걱정한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강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오랴. 배가 없는데 건너갈 게 어디 있오랴. 건너가는 데는 어디고 건너오는 데는 어디인가?' 이런 문제 등등을 여러분이 모두 공부를 하지 않으신다면 참, 이 세계의 자유스러운 광대무변한 법을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 내 몸똥이 하나가 지금 한 가정에 묶여 있는 요것만 알고 가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야지처럼 짐승처럼

하고 모습없이, 한 발도 잘못 던지 않고 한 말도 잘못하지 않고 실천을 옮기면서도 자유스럽게 이 세계, 아니 대천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공부야 바로 이겁니다.

이 대천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수레! 수레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불기둥이 아래 위 끼어서 딱 버티고 있으니 까 중간에 수레가 이렇게, 그 가운데 불기둥이 끼었기 때문에 바로 수레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와 같습니다. 수레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수레에서 우리가 딱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이승 천자 저승 천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도리를 벗기 위해서 짧은 한 생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는 그저 보이는 테마다 보이는 것마다 '네 마음을 먼저 알아라. 네 마음이 모두 너를 이끌고 가는 거다. 너 곱데기가 너라고 하지 말라. 너를 먼저 발견해야만이 이 세상의, 무의 세계, 유의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그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나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